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역확산 관련 알림  
(関西空港の麻疹の拡散に関するお知らせ)

※ 日本語案内は <http://www.mhlw.go.jp/qa/kenkou/hashika/index.html>

- 일본 오사카부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통해 홍역이 급속히 확산되어 공항직원 2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홍역은 바이러스에 감염 뒤 10~12일 가량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과 발진 등을 동반하며,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서 공기를 통해 체내에 침입한 뒤 호흡기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관련 일본 관서지역을 방문예정인 국민께서는 사전에 홍역예방 접종을 받으시기 바라며,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발열환자와의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종업원의 “홍역” 감염에 대하여

- 국제공항 내 사업소에서 종업원의 "홍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8.31.14시에 오사카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문의 창구로서 전용 전화(072-455-2288)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미 공항 내 사업소에 증세가 보이는 경우 근무를 자제할 것과 의료 기관에서 진찰받을 때의 주의점에 대해 주지시켰으며, 계속하여 오사카부 이즈미사노 보건소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감염확산 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역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병한 종업원 중에는接客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증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잠복기는 길어도 2주간이므로, 8월 17일 이후에 간사이 국제공항을 이용하신 고객 중 아래의 증상이 나타나신 분은 의료 기관에 연락 후, 그 지시에 따르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탁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에어포트 주식회사는 이 감염의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고객 분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 홍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hlw.go.jp/qa/kenkou/hashika/index.html>

(麻疹に関する日本語の案内はこのリンクをクリックしてください。)

**홍역의 증상】**

- Ⓢ 발열, 기침·콧물, 피부 발진, 결막의 충혈, 입안의 반점 등
  - Ⓢ 모든 증상이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 발열은 일단 내려갔다가도 반나절에서 하루 후 정도에 다시 고열이 납니다.
- 당지 방문·체류 중 긴급한 상황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락처 : 평일 09:00-17:30 (06)6213-1401~05  
휴일 및 야간 090-5376-5340, 090-3050-0746
-